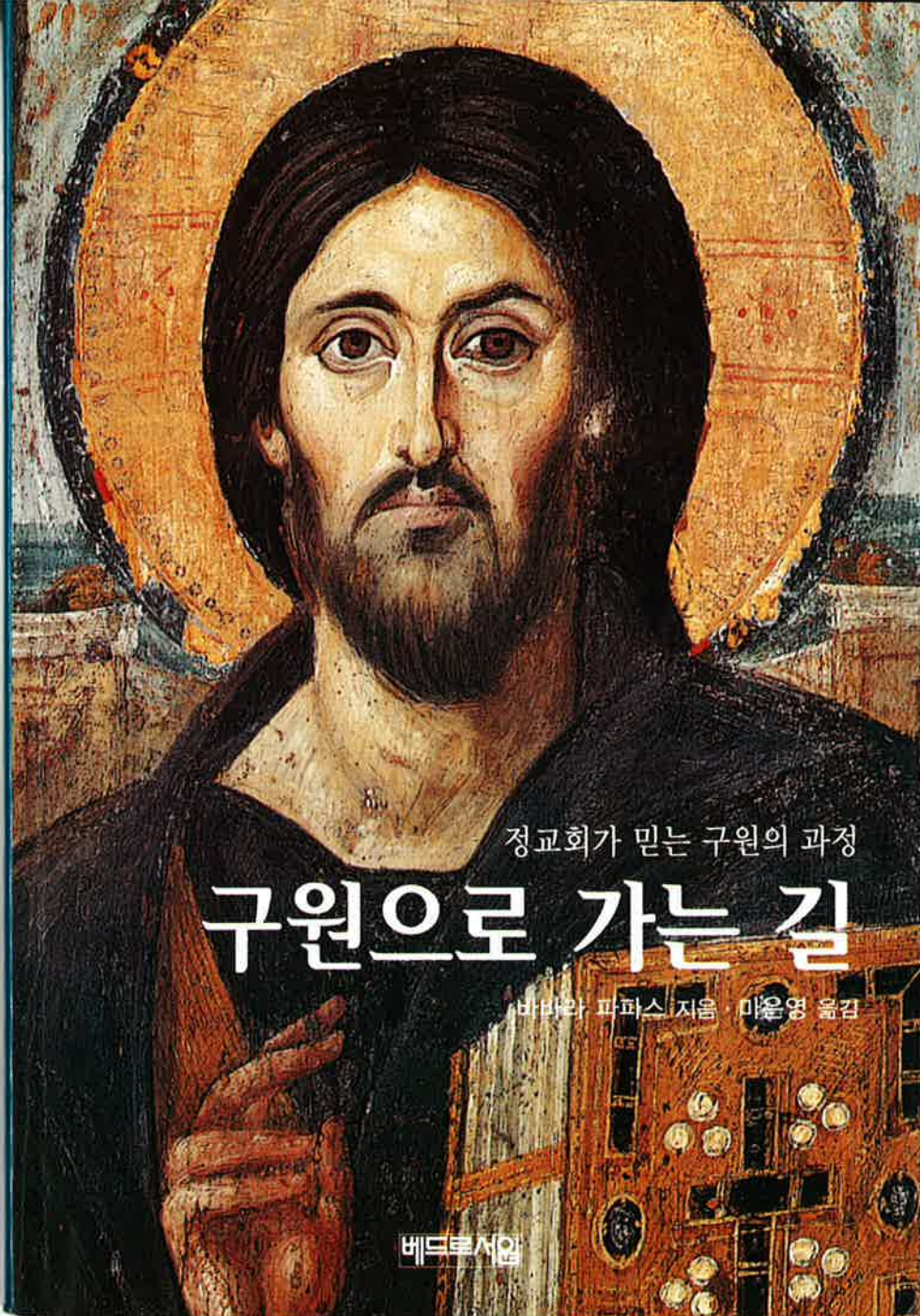




정교회가 믿는 구원의 과정

구원으로 가는 길

바라라 파파스 지음 마운영 옮김

베드로서인

예수 그리스도(기원 후 6세기)

납화법(밀랍을 섞은 안료를 달걀 쇠로 녹여 붙이는 회화 기법)으로 그린 이동식 성화로 이집트의 시나이에 위치한 정교회 수도원이 소장하고 있는 진품.

그리스도의 모습을 성스러우면서도 아름답게 그린, 지금까지 발견된 작품 중에서 가장 오래된 작품이다. 이 성화에서 그리스도는 왼손에는 값진 돌로 장식된 복음경을 들고 있으며 오른손으로는 축복을 내리고 있다. 두 눈은 서로 다른 표정을 하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가 두 가지 속성(인성과 신성)을 지닌 분임을 나타낸다.

하느님이자 인간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느님으로(오른쪽의 엄격한 눈) “율법을 정하시고 심판하시는 유일한 분”(야고보서 4,12)이시며, 각자의 행위에 따라 인간을 심판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왼쪽의 평온한 눈)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제물이”(요한의 첫째 편지 2,2) 되셨으며,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고귀한 피를 쏟으셨다.

구원으로 가는 길

정교회가 믿는 구원의 과정

구원으로 가는 길

정교회가 믿는 구원의 과정

바바라 파파스 지음

마은영 옮김

C · O · N · T · E · N · T · S

— 차례 —

머리말

제 1 장

구원의 과정에서 첫째 단계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탄생 성화

하느님의 신성한 계획	13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13
하느님의 약속	19

제 2 장

구원의 과정에서 둘째 단계를 보여주는
네 복음사도의 성화

구원의 신비	37
구원은 과정이다.	37
나는 구원 받았다 / 39	
나는 구원 받는다 / 40	
나는 구원 받는 중이다 / 40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 43	
"순간 구원" 이론에 숨어있는 위험	47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	54
천국의 문을 연 사건	57
심판에 대하여	58

C · O · N · T · E · N · T · S

— 차 례 —

제 3 장

구원의 과정에서 셋째 단계를 보여주는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리스도의 성화

천국으로 가는 길 63

쉽지 않은 길 63

1. 믿기 / 64

2. 믿음을 증명하기 / 65

3. 심판에 직면하기 / 75

4. 보상 받기 / 79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과 그곳에서
제외되는 고통 84

우리 자신이나 남들을 심판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법에 대하여 86

구원의 과정에서 넷째 단계를 보여주는
지하로 내려가신 그리스도 성화

마치는 말 91

참고문헌 93

한국정교회 역사 97

머리말

구원의 문제는 모든 인류가 언제 어디서나 관심을 갖는 문제이다. 인종과 국적, 종교와 사회 제도, 그리고 정치 제도에 상관없이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 받기를 열렬히 바랬고, 지금도 바라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바랄 것이다. 사람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알고 싶어 했으며, 사후 세계는 과연 존재하는지, 아니면 동물이나 식물이 그러하듯이 사람도 육체적으로 죽고 나면 모든게 끝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 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내려고 부단히 노력해 왔다.

고대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교와 철학은 제각기 나름대로 인류를 고민하게 하는 사후 세계에 대한 의문을 풀어보려고 애를 써왔다. 하느님께서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신 인간은 영원히 살고 싶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내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 예로 한국을 비롯하여 역사가 긴 여러 나라의 장례 풍습 중에는 죽음을 초월하여 불멸과 구원을 얻고자 하

는 인간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사후 세계라는 이 거대한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주어진 대답들을 깊이 연구해 본 사람은 이 대답들이 전혀 만족스럽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후에 대한 불안감으로부터 인류를 해방시켜 주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교가 주는 구원에 대한 대답만이 완전하고 완벽하다. 왜냐하면 이는 인간이 준 대답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계시를 통해 주신 대답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이시자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셨기에 인간을 하늘로 들어올리시기 위해 몸소 땅으로 내려 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 태어나심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을 인간에게 보여 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 주셨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요한 14,6) 때문이다. 그분은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세주이시다. 왜냐하면 “그분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 받을 수 없으며,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이 이름밖에는 없기”(사도행전 4,12)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 일부는 복음의 건전한 가르침에 어긋나는(1 디모테오 1,10) 잘못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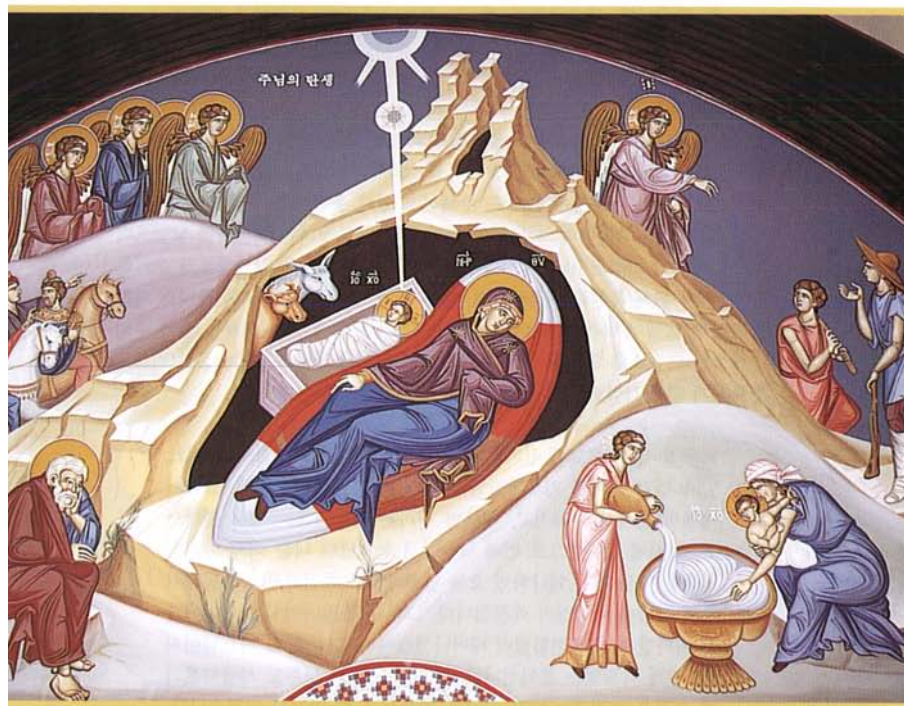
과 개념을 갖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3억이 넘는 신도를 가진 정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시던 시절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변함없이 그대로 고수해 오고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던 구원의 길을, 다시 말하면 “정교회의 길(바른 길)”을 가르쳐 오고 있다. 이 바른 길만이 인간을 구원과 해방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준다.

이 책은 미국에서 판을 거듭하여 인쇄되어 수십만 권이 팔린 책이다. 한국어로 번역될 수 있도록 선뜻 허락해 준 저자 바바라 파파스 여사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번역을 맡아 준 마그달리니 마은영 교우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인간의 성화(聖化)와 구원을 향한 정교회의 행진이 하나이고 거룩하며 공변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의 가르침과 성서의 빛을 받아 이 책을 통해 처음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소개된다.

만일 이 작은 책으로 인해 구원을 찾게 된 사람이 있다면, 이 책의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은 죄인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하는 것처럼(루가 15,7) 그렇게 큰 기쁨을 느낄 것이다.

신학박사

암브로시오스 아리스토텔레스 조그라포스 대신부



그리스도의 탄생. 한국 정교회 성 니콜라스 서울 성당의 벽화.

그리스 성화 작가들의 1996년 작품.

이 성화는 구원의 과정에서 첫째 단계를 보여 준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시며,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서 구약 성서의 모든 예언과 약속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단계이다. 그리스도는 악마를 물리치셨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

우리를 위해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그리스도시여, 당신에게 우리가 무엇을 바칠까요? 당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천사들은 찬양을, 하늘은 별을, 박사들은 예물을, 목자들은 경배를, 땅은 동굴을, 그리고 우리는 동정녀이신 어머니를 바칩니다. 태초로부터 계시는 하느님이시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탄 전야 대만과에서

앞쪽에 소개된 그리스도의 탄생 성화를 살펴보자. 성모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였음은 그분의 머리와 양어깨에 각각 하나씩 그려진 세 개의 별로 상징된다. 즉 그분이 그리스도를 수태하기 전에도, 수태하고 있던 동안에도, 그리고 그 후에도 동정녀이었음을 나타낸다.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 동정녀는 메시아를 낳았으며 이로써 예언이 완성되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는 악마의 간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취하셨으며, 성화 왼쪽 아래 부분을 보면 목자로 변장한 악마가 요셉의 마음 속에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일까 하는 의문을 심어 주려고 애쓰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예수님이 태어난 동굴의 까만색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살고 있던 어두운 세상을 상징한다.

모두 와서 이 오묘한 신비를 선포하며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던 분단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불칼이 에덴의 문에서 치워지고, 헤루빔 천사는 생명의 나무에서 물러서고, 예전에 불순종으로 인해 낙원에서 쫓겨났던 나는 이제 낙원의 기쁨을 맛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느님께서 종의 형상을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동정녀이신 어머니에게서 어떠한 본성의 변함없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참 하느님이시며, 전과 다름없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셨기에 그분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취하시고 참 인간이 되었습니다. 교인들이여, 그분께 소리 높여 외칩시다. “동정녀로부터 태어나신 하느님이시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외칩시다!

성탄 전야 대만과에서

제 1 장

하느님의 신성한 계획

“하늘나라에 대한 열망이 당신의 가슴 속에서 뿔뿔처럼 활활 타
오른다면, 당신은 머지않아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이 분명
하다.”라고 이페레처스 교부는 말했다.

크리소스톰 대신부
'사막의 교부들'에서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이 심각한 질문에 대한 정교회의 대답은 무엇인가? 성서는 우리가 찾는 대답의 근거를 제공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 해석될 수도 있다. 오랜 역사를 지닌 정교회는 그리스도와 사도들로부터 이어받은 영원한 진리를 모든 세대를 위해 지켜오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해 왔다. 이 신성한 작업을 위해 사용된 매개체들은 정교회 교부들의 글, (이단을 반박한) 공의회들의 결정들, 각종 예식서, 성가, 그리고 성화이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보물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내용을 알아보기로 하자.

구약 성서에는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 후에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이 만드신 것들을 돌아보셨는데 보시니 참 좋았다(창세기 1,25). 하느님은 사랑이시

므로 당신 속에 품고 있는 큰 사랑으로 인해 당신이 만드신 것들을 함께 공유할 존재를 원하셨다. 하지만 하느님은 당신 주변이 각본대로만 반응하는 로봇과 같은 존재들로 둘러싸이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오직 당신과 비슷한 존재들만이 당신이 만드신 놀라운 것들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기에 하느님은 당신의 모습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다. 하느님은 그들에게 땅과 살아있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는 권한을 주셨다.¹ 하느님은 이에 대한 대가로 오직 인간에게 사랑만을 요구하셨으며, 사랑은 인간이 하느님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하느님께서서는 동쪽에 있는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마련하시고 당신께서 빚어 만드신 사람을 (그리고 여자를) 그리로 데려다가 살게 하셨다(창세기 2,8). 그곳은 완벽한 곳이었다. 하느님은 그들과 함께 걷기도 하시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셨다.² 그들 주위에는 온갖 아름다운 것들과 신기한 것들이 널려 있었으며 먹을 음식도 풍성해서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다. 그들은 중간에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 자신

1. 창세기 1,28.

2. 창세기 3,8-9.

들을 창조하신 하느님과 온전한 친교를 이룰 수도 있었다.³ 게다가 그들에게는 땀을 흘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즐거운 일이—이를 태면 정원 가꾸기 같은—있었다. 인간이나 동물이나 식물에게는 질병이 없었고, 노화나 죽음을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정원의 고요함이나 그들의 평온한 삶을 방해할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이 성장하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 하느님은 땅에서 안개가 솟아올라 정원을 적시게 만드셨다.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아담과 하와는 틀림없이 자신들의 너그러운 은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고백했을 것이다. 하지만 말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는 법이다. 진정한 사랑은 선택을 요구한다. 그래서 하느님은 한 가지만 제외하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자유를 주셨다. 그들에게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보일 기회를 주고 또 그들이 자제를 통해 보다 강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느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다(창세기 2,17). 그리고 하느님은 사탄이 그들을 유혹하도록 내버려두셨다.

3. Kallistos Ware, *The Orthodox Way*, p. 66, 사도행전 17,26-27.

결과는 참혹했다. 그들은 이 단 하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으며, 사탄을 하늘에서 떨어지게 만들었던 바로 그 탐욕과 오만에 무릎을 꿇고 말았던 것이다.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차 있어야만 할 마음 속에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욕구가 한계를 모른 채 견잡을 수 없는 속도로 쑥쑥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하느님께 순종하고 하느님의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 참여야 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거부했다. 그 대신 그들은 불순종을 통해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하느님을 옥좌에서 쫓아내려고—했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이었다. 아담과 하와는 원래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지만 이제 하느님은 가죽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셨으며(창세기 3,21) 이 가죽옷으로 인해 그들은 불멸의 존재에서 죽어야 하는 운명을 지닌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⁵ 그런 다음 하느님은 에덴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 위해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문에 불칼을 세워 놓으시고 헤루빔 천사에게 그

4. 이사야 14,12-21, 요한복서 12,7-12.

5. Panayiotis Nellas, "Garments of Skin," *Deification in Christ*, p. 46-53.

문을 지키게 하셨다.

그때부터 첫 남자와 여자는 자기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살아야만 했다. 그들은 하느님의 보호 속에서 안전하게 지내던 에덴동산에 더 이상 살고 있지 않기에 식량을 얻기 위해 땀을 흘려야 했고, 혹독한 기후와 그전까지는 친하게 지냈던 동물들과 그리고 그들이 지나가는 길에 악마가 세워 놓은 온갖 것들과 투쟁을 벌여야만 했다.⁶ 그들은 노화, 질병, 그리고 고빠가 풀린 사악한 것들과 싸워야만 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평선 위에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낸 죽음이 차라리 축복이었다. 죽음은 인생의 즐거움에 그림자를 드리우기도 하지만 동시에 타락한 세상이 가져온 결과들에 경계선을 그어주기도 하기 때문이었다. 개인적으로 겪어야 하는 고통과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 기회는 시간의 한계 속에 갇히게 되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므로 그들이 “원죄”를 짓고 천국에서 쫓겨나면서 그들에게 붙여진 그 조건들을 그대로 물려받았다.⁷ 인생의 즐거움

6. 창세기 3,17-19.

7. “정교회는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유죄(original guilt)’라는 교리를,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공유하고 있다는 견해를 항상 반박해 왔다.” Cronk, p. 45. 또한 Ware의 p. 80-81 참조.

은 아담과 하와로 인해 우리 모두가 잃어버렸던 지복의 상태로 되돌아갈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다.

구원은 하느님과 함께 하는 영원히 보장된 삶으로, 하느님을 둘러싸고 있는 이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지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구원이라는 이 귀중한 선물을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에덴동산이 아니라 천국 그 자체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천국은 하느님 자신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⁸ 그곳에는 더 이상 유혹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없을 것이다. 시련의 시간은 지나가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구분이 이미 끝나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 받을 수 있는 이 유일한 기회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뼈를 깎는 후회 속으로 우리 자신을 내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⁹ 하지만 죽은 다음에 하는 후회는 너무 늦다. 그때는 우리가 이미 죽지 않는 구덩이가(마르코 9,48) 있는 곳에 영원히 불타는 꺼지지 않는 불이(마태오 3,12) 있는 지옥에 던져진 후이기 때문이다.

8. 요한묵시록 21,3-4.

9. Nikolaos P. Vassiliadis, *The Mystery of Death*, p. 519-520.

하느님의 약속

아담과 하와를 에덴동산에서 쫓아내시기 전에 하느님은 인간이 죄를 지었음에도 여전히 아버지로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신뢰하신다는 사실을 보여 주시는 첫 예언을 그들에게 하셨다.¹⁰ 하느님은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가 출산하게 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인간은 사탄의 부추김을 받아 스스로에게 저질렀던 일의 결과로부터 해방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가 죄의 원조이며 거짓말의 아버지인 악마와 싸울 거라는 것이었다.¹¹ 악마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괴롭히겠지만 악마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리스도의 발꿈치에 상처를 내는 정도(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에 그칠 거라는 것이다. 결국엔 그리스도가 (부활을 통해) 악마의 머리를 부스러뜨리고 승리를 하게 될 것이었다. 하느님이 약속하신 이 구세주는 하느님이 인간에게 구세주의 필요성을 인식할 기회를 주신 다음에 때가 찼을 때(갈라디아 4,4) 올 예정이었다.

인간이 구세주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도록 하시기 위해

10. 창세기 3,15.

11. 요한 8,44.

하느님은 당신의 계획 속에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포함시키셨다.¹² 첫째, 하느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당신에게 순종하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구두 계약**을 하셨다.¹³ 이 계약의 표시가 할례였다. 할례의 목적은 하느님의 백성은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로부터 분리된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 그 나라로부터 (다윗의 가문이라는) 한 가문을 세워 그 가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이 오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대부분 하느님에게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느님에게서 등을 돌렸다. 이방인들을 하느님 곁에 데려오는 대신 그들이 이방인들의 무리에 합류했다.

구약의 역사는 연속적인 멸망과 연결된 선택의 역사이다. 이 선택을 통해 하느님은 지극히 순결하신 동정녀가 인류의 구세주를 낳을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리면서 자신을 순화시킨 “뽑힌 사람들”을 구원하신다.¹⁴

12. George Nikozisin 신부와 Freida Upson 사모, *The Sacraments of the Orthodox Church*, p. 7-10.

13. 창세기 17,1-2.

14. Vladimir Lossky, *Orthodox Theology, An Introduction*, p. 86.

시간이 흘러 인간이 준비가 되었을 때, 하느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심으로써 성문 계약을 맺으셨다. 율법의 목적은 하느님이 계신 곳으로 인간이 돌아가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완성이 무엇인지 그 윤곽을 대충 그려 줌으로써 죄를 정의하는 것이었다. 이 체험은 인간이 자기 혼자 의 힘만으로는 결코 구원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¹⁵ 아담과 하와는 한 가지 계명만 지키면 되었으나 이제는 열 가지 계명이 있었다.¹⁶ 게다가 613개의 법이 있었다.¹⁷ 이 법들은 정확하게 지켜져야만 했으며 하나를 어기면 법 전체를 어기는 것이었다.¹⁸ 법 하나를 어길 때마다 계약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보속에 필요한 봉헌물이나 제물을 바쳐야만 했다. 인간은 결코 끝나지 않는 순환고리 속에 갇히고 말았다. 인간이기 때문에 법을 어기는 것은 피할 수가 없었으며 그럴 때마다 요구되는 제물을 바쳐야 하고, 밖으로 나가서는 또 다른 법을 어기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쓸데없는 반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전체를 대신해서 당신 자신을 마지막 산 제물로 바칠 때까지 계

15. 로마서 3,19-20.

16. 출애굽기 34,27-28.

17.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및 신명기 참조.

18. 신명기 27,10, 26, 야고보서 2,10.

속되었다.¹⁹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이 쓰여진 판을 담을
궤와 그 궤를 안치할 천막을 (후에 성전으로 대체되었다)
지으라고 하셨다. 궤는 하느님이 나타나시는 장소인²⁰ 지성
소라고 불리는 성스러운 장소에 안치될 예정이었다. 오직
대사제만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으며 그것도 일년
에 단 한 번 속죄의 날에 희생의 피를 바치고 백성들이 지
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기 위해서만 들어갈 수 있었다.²¹
지성소는 성소라고 불리는 곳과 휘장으로 분리되었다.²² 사
제들은 율법에 따라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바치기 위해
날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쳐진
휘장은 불순종으로 인해 인간이 하느님을 거부한 사실을
상징했다.²³

하느님은 아무리 애를 써도 율법을 통해서는 결코 구원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당신의 백성들이 느끼도록 하셨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들이 절망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지는

19. 요한 1서 2,2.

20. 출애굽기 25,22.

21. 레위기 16.

22. 출애굽기 26,33.

23. 히브리서 9,1-15.

않으셨다. 구약 시대 동안 내내 하느님은 그들을 어려운 곤경에서 구해줄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표시와 예언을 계속 해서 그들에게 내려 주셨다.

구세주에 대한 인간의 욕구. 에녹과 엘리야는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렸기 때문에 하늘로 직접 들어올려졌다고 성서에는 기록되어 있다.²⁴ 성 요한 크리소스톰(기원후 4세기의 교부)은 엘리야가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기술했는데, 이때 말하는 완전함이란 그리스도가 그런 것처럼 정말로 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살던 시대에 비추어 보아 완전하다는 의미였다.²⁵ 비록 우리 모두는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요청 받고 있지만²⁶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목표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가 바로 죄의 정의이다(그리스어로 죄를 아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하며,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서 해 줄 중재자가 필요하다. 인간이 이런 사실을 이해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주신 후 하느님

24. 창세기 5,24, 히브리서 11,5, 열왕기하 2,1-11.

25. M. F. Toal, *The Sunday Sermons of the Great Fathers*, 제 2권, p. 54-55.

26. 마태오 5,48.

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 아들은 참 하느님이면서 참 인간인 두 개의 속성을 동시에 지녔기 때문에 하늘과 땅 사이의 벌어진 틈을 연결시키는 다리가 되었으며,²⁷ 야곱의 꿈에 보였던 사다리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그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²⁸

그리스도는 완벽한 삶을 사셨으며 영원히 하느님과 함께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서 하느님이 바라시는 순종의 조건을 충족시키셨다. 이리하여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리스도가 사목을 하시는 동안 그분의 적들은 그분을 죽이려 했다.²⁹ 그러나 때가 올 때까지³⁰ 그리스도는 그들의 시도가 수포로 돌아가도록 하셨다. 사탄은 하느님의 아들이 죽으리라는 기대감 속에서 침을 흘리며 좋아했지만 그

27.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 자신이 테안트로포스(Theanthropos), 다시 말하면 하느님이시자 인간이 되셔야만 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느님이 되셔야만 하지만 또한 인간이 되셔야만 했는데 그렇게 해야만 구원이 단지 위로부터 하느님에 의해서 일종의 마술처럼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도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Gerasimos Papadopoulos 주교, *Orthodoxy: Faith and Life*, 제2권, *Christ in the Life of the Church*, p. 41.

28. 창세기 28,12-13, 요한 1,51.

29. 요한 7,30, 8,20, 10,31, 10,39.

30. 요한 17,1.

리스도는 자신을 통제하셨음이 분명하다. 하느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자 그리스도는 자발적으로 당신의 생명을 내주셨다. 이것은 그분이 세상에 오신 이유였기 때문이다.³¹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을 사실상 뒤에서 조종했던 사탄은 그 만 자신의 한계를 넘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함정 속에 스스로 빠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는 갈고리 위에 매달린 미끼였다. 악마는 먹이 위에 달려들었지만 갈고리가 그를 관통했다. 악마는 하느님을 삼킬 수가 없었던 것이다.

니사의 성 그리고리오스³²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는 돌아가셨지만 죽음은 그리스도를 붙잡아 둘 수 없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는 죽음을 누르셨고 하느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부활하셨다.

죄가(악마가) 유죄인 사람에게만 사형을 선고하는 한 그

31. 요한 10,17-18.

32. Lossky, "Christological Dogma," *Theology*, p. 114.

행동은 정당하므로 아무도 이에 대해 간섭할 수 없었다. 그러나 죄가 전혀 죄를 짓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영광의 왕관을 쓰시고 찬양을 받으셔야 마땅한 그분에게 같은 벌을 받게 하자... 죄는 그 힘을 잃고 말았다.

알렉산드리아의 성 끼릴로스³³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느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매겨 놓으신 몸값이라기보다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살았던 모든 이들이 물려받은 죄의 결과였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습을 취하심으로써 인간이 물려받은 고통과 죽음도 역시 취하셨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죽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들은 모두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돌아가실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분의 죽음은 오직 완전한 희생양으로서만 정당화된다.³⁴ 그분은 자발적으로 인간이 지은 죄의 짐을 떠맡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자 하늘은 어두워졌고 땅은 요동을 쳤다. 지하 세계는 뒤집어졌으며 성전에 처진 휘

33. R. Payne Smith, trans, "On the Incarnation," *Commentary on the Gospel of St. Luke, note 1*, p. 52.

34. 창세기 22,7-8, 출애굽기 12,3-13, 레위기 23,12, 이사야 53,7, 요한 1,29.

장이 두 폭으로 찢어졌다. 이로써 인간은 다시 한 번 하느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³⁵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누구에게 바쳐졌으며, 또 무엇 때문에 사제인 동시에 희생물이셨던 우리 하느님은 당신의 위대하고 고귀한 피를 흘리셔야만 했을까요? 그건 우리가 사악한 악마에게 붙잡혀 있었기 때문이며, 악마가 주는 기쁨을 받아드려 죄의 나라에 팔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구원의 대가가 우리를 속박하고 있던 자에게 지불된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그 대가는 지불되었으며 왜 그래야 했는지를 나는 묻고 싶습니다. 만일 그 대가가 사악한 자인 악마에게 지불되었다면 그건 쓸데없이 돈만 낭비한 꼴이었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도둑이 (악마를 의미함) 우리를 풀어 주는 몸값으로 하느님으로부터 그것도 하느님 자신을 받는 것이었다면 그렇게 비싼 대가를 치루지 않는 편이 더 타당하였을 것입니다. 만일 그 대가가 하느님에게 지불되었다면 우리는 하느님에게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하느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사악을 제물로

35. 마태오 27,51-54, 루가 23,44-45.

바치려고 했을 때 이를 받지 않으시고 그 대신 수양을 제물로 바치도록 하신 분이셨는데(창세기 22,11), 왜 당신의 외아들의 피는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성부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를 받으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비록 성부께서는 이를 요구하지도 않으셨고 또 그럴 필요도 없는 분이시기에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나지안조스의 성 그리고리오스³⁶

그리스도는 라자로와 같은 사람들을 살어나게 하셨지만 그 사람들은 다시 죽음을 맞이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첫 사람이 되셨다.³⁷ 주님은 더 이상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은 40일 동안 땅 위를 걸어 다니시면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당신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당신이 진정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알도록 하시며 또 죽음 뒤에 삶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확실히 알도록 하

36. Toal, "On the Holy Pasch," 제2권, p. 257.

37. 1 고린토 15,20.

신 다음에 성부의 오른쪽에 위치한 옥좌로 올라가셨으며 그곳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해서 하느님은 앞서 맺으셨던 구두 계약과 성문 계약을 완성하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계약인 피의 계약을 인간들과 맺으셨다. 이 피의 계약의 조항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분이 자신들의 주님이시고 구세주이시며 천국으로 가는 길을 준비해 주신 메시아임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모두 구원의 선물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례와 신성한 감사성사와 믿음의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므로써 단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죄의 결과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³⁸ 그리하여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³⁹

믿음은 증명되어야 한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하기는 매우 쉽다. 그 말에 어울리게 사는 것이 힘들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이다. 그런 이유로 해서 그리스도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부른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38. 히브리서 9-14-15 (8장에서 10장까지 읽기).

39. 에페소 2,4-6, 갈라디아 4,4-7.

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마태오 7,21)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가 단지 믿음을 고백했다고 해서 그 이후 구원 받았다고 확신해서는 안된다고 성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다. 믿음은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생활에 의해 증명되어야만 한다.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이다(야고보서 2,20). 하느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므로 믿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II 고린토 13,5을 읽어 보아야만 한다.

우리는 매일, 그리고 매시간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야 한다. 하느님은 매일, 그리고 매시간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증명해 주시기 때문이다.

시리아의 성 이사악⁴⁰

분명 하느님은 우리 마음 속을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자신의 믿음을 생활을 통해 증명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지 하느님을 위해서가 아니다. 이는 축복이

40. Nikolai Velimirovic, *The Prologue from Ochrid*, 제1부, p. 296.

지 결코 짐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준다. 이는 우리에게 행동하라고 또 거룩해지기 위해 노력하라고 부추기며 믿음 이외에도 지식, 절제, 인내심, 거룩함, 친절,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을 얻음으로써 인간의 속성을 벗어나 **하느님의 속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촉구한다. 만일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영적 성장을 위한 이 투쟁에 참여한다면 우리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성서는 약속하고 있다(II 베드로 1,11).

우리 시대의 어떤 거룩한 사람이 한 젊은 수도원장에게 이렇게 충고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께서 요구하시는 일들을 행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행위를 변명하기 위해 거룩한 교회의 가르침이 틀렸다고 트집을 잡으며 올바른 믿음을 거부하고 있다네. 그들은 바른 믿음 대신에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들만 믿으려 하지. 이런 사람들은 단지 죽는다는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신이 언젠가는 죽을 거라는 사실을 믿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과 다름없다네. 그런 사람은 누구나 당연히 해야 하는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한 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덫에 빠지게 되지. 올바른 믿음은 우리가 진실이기를 바라는 것들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에 근거를 두고 있다네.”⁴¹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소중한 율법의 완성자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해

성 대 레오

믿는 사람들 중에 은총의 선물을 받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듯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삶의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비록 상징적인 율법의 잔혹성은 제거 되었지만 그럼에도 복음사 요한이 “모세에게서는 율법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은총과 진리를 받았다”(요한 1,17)라고 말했듯이 율법에 자발적으로 복종했을 때 얻어지는 이익은 훨씬 늘어났다. 왜냐하면 율법에 속한 것은 그것이 할레이든, 여러 가지 제물을 바치는 것이든, 아니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든 무엇이든 다 그리스도를 증거 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은총을 예고하였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므로 율법은 끝이 났는데(로마서

41. Chrysostomos 대신부, *The Ancient Fathers of the Desert*, p. 66.

10,4), 이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의미이다. 비록 그리스도는 신약과 구약의 주인이시기는 하지만 더 이상 구약의 상징과 약속들이 신비로운 의미를 지닐 수 없도록 만드셨는데 이는 그분이 약속을 완성하셨으며 예고되었던 그분 자신이 이제 오심으로써 예언이 중단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구약의 가르침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구약의 가르침의 많은 부분들이 복음의 가르침을 통해 확대되었으며 우리에게 구세주를 약속해 주던 그 시대보다 더 분명하고 더 완전하게 구원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게 되었다.⁴²

42. Toal, 제2권, p. 151.



복음경을 들고 옥좌에 앉아 계신 주님. 기도하는 자세의 테오토코스(성모 마리아)와 선구자 성 요한, 그리고 각자 자신이 쓴 복음을 들고 있는 네 복음사도들. 복음경 (39×29.5 크기의 필사본 208번)의 겉표지 다음에 끼워 넣은 황금 종이에 그려진 성화로 시나이 수도원이 소장하고 있는 기원후 12세기 작품.

이 성화는 구원의 과정에서 둘째 단계를 보여 준다. 이는 “믿음을 증명하는” 단계이다. 우리는 복음서에 쓰여진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기록을 안내자로 삼아 그리스도처럼 되려고 노력하면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자애로우신 주님이시여, 지혜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빛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어 당신의 복음을 깨닫게 하소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게 하시어 모든 욕망을 이기고 만사를 주님 뜻대로 생각하고 행함으로써 영적인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 하느님이시여, 당신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비추는 빛이시니, 당신과 영원하신 성부와 지극히 선하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신께, 이제와 항상 또 영원히 영광을 바치나이다. 아멘.

성 요한 크리소스톰의 성찬 예배서
복음 전 기도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듣기 싫어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 때에 그들은 자기네 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마음에 맞는 교사들을 끌어 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꾸며 낸 이야기에 마음을 팔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어 내며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 그대의 사명을 완수하십시오.”(II 디모테오 4,3-5)

제 2 장 구원의 신비

아마도 여러분은 각자 자기 자신에게 “나는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을 거야”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일 믿음에 선한 행동이 뒤따르면 이 말은 사실일 것입니다. 말로 고백한 것을 행동으로 부정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로는 그릇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해 “그들은 하느님을 안다고 말은 하지만 행동으로는 하느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디도서 1,16)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역시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느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자는 거짓말쟁이이고 진리를 저버리는 자입니다”(요한 1서 2,4)라고 말했습니다.

성 대 그리고리오스

M. F. Toal, 위대한 교부들의 주일설교 모음집

구원은 과정이다

정교회 신학은 구원이 성화(聖化)의 과정이라는 진리를 고수하고 있다. 이때의 성화란 그리스도를 본보기로 삼아 하느님의 모습을 닮기 위해 성장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은 은총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으며 믿음을 그 연료로 삼아 우리가 지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계속된다. 우리는 은총에 의해, 그리고 믿음을 통해 구원 받는다.

정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영적인 태양은 사방으로 그 빛을 비추십니다. 어

떤 사람은 은총을 더 적게 받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받습니
 다. 이는 은총이 각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주어져서가 아니
 라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들어오는 은총
 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비추는 태양은 하
 나이고 그 빛과 광채도 하나이지만 태양이 똑같은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추지는 않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햇빛이 놀라
 울 정도로 강하게 비치지만 다른 곳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집은 햇빛이 잘 들지 않지만 어떤 집은 햇빛이 너
 무도 잘 듭니다. 이는 태양이 이 집에는 더 많은 빛을 주고
 저 집에는 더 적게 주어서가 아닙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창
 문을 몇 개나 달았으며 또 어떤 크기의 창문을 달았느냐에
 따라 들어가는 햇빛의 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과 목적이 바로 우리 영혼의 창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활
 작 열면 더 많고 더 풍성한 하느님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의 문을 좁게 만들면 그만큼 적은 양의 은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과 영혼을
 깨끗이 치우고 하느님을 향해 활짝 열어서 그분의 광채가
 여러분 안으로 가득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톰⁴³

43. Toal, "On the Gospel," 제1권, p. 417.

구원의 과정은 하느님과 인간이 서로 협조해야만 가능한 공동 작업으로 이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 동시적으로”⁴⁴ 행해진다. 정교회 교인으로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구원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분은 내가 구원 받을 수 있게 해 주셨다. 그분이 그런 일을 하시기 전에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율법을 통해 완전해지는 것뿐이었는데⁴⁵ 이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죽음으로 그 벌금을 “치르셨다”라고 말할 때, 이를 문자 그대로 벌금으로 “책정된” 액수의 돈을 “지불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이는 구세주께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빚어진 고통스런 결과를 받아들이셨다는 의미이다. 하느님의 아들이 육신을 취하셨을 때 그분은 죄의 결과로 인

44. George Cronk, *The Message of the Bible, An Orthodox Christian Perspective*, p. 265.

45. 로마서 4,13-15, 7,7-8,4.

간에게 온 죽음도 취하셨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시기에 죽음은 그분을 붙잡아 둘 수가 없었다. 죽음은 또한 피의 계약의 조항에 따라 신앙생활의 일부인 세례성사와 성체성혈성사를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어느 누구도 붙잡아 둘 수가 없다.

나는 구원 받는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한다는⁴⁶ 비밀을 내가 알고 있다는 점에서 나는 구원 받는다. 그러나 내가 수학 공부를 한다면 수학 공식만 달달 외워 선생님께 말씀드린다고 해서 합격 점수를 받는 것은 아니다. 나는 시험을 치러야만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입으로 고백한 믿음은 인생이라는 문맥 속에서 검증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진실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구원 받는 중이다(현재 진행형)

나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생각하는 나의 믿음을 하느님

46. 요한 14,6.

게서 정해 놓으신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순종을 통해 하느님처럼 되려고 최대한으로 노력함으로써 (테오시스:신화(神化)) 증명해 보여야 하기 때문에 구원 받는 중이다. 우리 주님의 완벽한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를 보여주는 본보기이다.⁴⁷ 이것은 과정이다. 사도 바울로가 편지에서 썼듯이 우리는 모두 완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 나가야 한다.⁴⁸ “우리는 믿음과 세례를 통해 이미 될 가능성이 있는 바로 그것이, 즉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항상 되고 있는 중이다.”⁴⁹ 아이들에게는 자신들이 숭배하는 영웅을 닮으려고 무척 애를 쓰는 성향이 있는데 이는 우리 안에 하느님이 주신 암시으로써 하느님을 닮으려는 욕구가 내재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우리는 이 내적인 욕구를 적절하게 길들여서, 우리 구세주의 자질들을 우리도 지니려고 열심히 흉내 내고 구세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열렬하게 보이고 또 모든 것이 거룩한⁵⁰ 하느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삶에 대해 부지런히 준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삶의 유형의 요소들이 바

47. 1 베드로 2,21.

48. 필립비 3,12-16.

49. Papadopoulos, p. 56.

50. 히브리서 12,14.

로 새로운 계약의 “선한 행동들”이며 이 선한 행동들은 모세의 율법 하에서 행해지던 형식적인 행동들과는 전혀 다르다. 이 선한 행동들이 결코 하늘에서의 자리를 우리에게 확보해 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 믿음을 보여주는 표시들이다. 그것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체들인⁵¹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일의 수단이기도 하다. 믿음의 결과가 아닌 다른 이유로 행해지는 행동은 영적인 가치가 없다.⁵² 그런 행동은 오직 순간적인 이득만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그분에 대한 믿음 때문에 행해지는 행동들은 그 파급 효과가 훨씬 멀리까지 미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은총의 축복을 받으며, 은총의 축복으로 인해 그는 그런 노력을 하는데 힘을 얻게 되며 동시에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일을 하는데 도움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진 선한 행동의 수혜자는 그 역시 믿음을 갖고 있을 경우 천국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랑을 맛보게 된다. “선”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데서 온다.

51. 1 고린토 12, 27.

52. 히브리서 11, 6.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 삶이,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기간이 끝날 때, 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둘 중 어느 것이 먼저 일어나든지 간에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늘로 직접 들어 올려진 에녹과 엘리야의 예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아직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에 죽음을 거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의 예시이다.⁵³ 그 때에 나는 심판을 직면해야 한다.⁵⁴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의 옥좌에 앉으신 당신의 아들을 통해) 내가 정말 믿었는지를 아시기 때문이다. 내 삶은 내가 이런 노력 혹은 저런 노력에서 성공했느냐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로 내가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완성의 예를 따르려고 진정으로 노력했느냐에 의해 평가될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단 하나의 계명을 준수하면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그분을 구세주로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점에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려고 노력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존재를 우리가 알고 있으며 그분을 주님

53. 1 데살로니카 4,15-18.

54. 요한 5,26-30.

이시자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 주어야만 한다. 요한복서 20,12-13에는 우리 믿음이 우리 행적에 따라 심판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오직 한 번의 삶이 너무도 빨리 지나갈 것이다.

오직 하느님을 위해 행해진 것만이 남을 것이다!

여기에서 하느님의 은총은 어디에 들어가야 어울릴까?⁵⁵ 믿음을 확인시켜 주는 적극적인 행동이나 그런 행동을 하려는 시도는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은총을 주시는 성령에 의해 영접을 받는다.⁵⁶ 은총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초자연적인 도움이며 은총을 통해 인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된다. 은총이 없으면 인간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

하느님의 은총은 구원을 회피하는 사람들을 찾아갈 수 없다. 그리고 인간의 어떤 미덕도 은총의 손길이 닿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참된 삶으로 들어올릴 만한 힘을 갖고 있지

55. 에페소 2,8-10.

56. Christoforos Stavropoulos 대신부, *Partakers of Divine Nature*, Stanley S. Harakas 신부 번역, p. 35.

는 않다. ... 그러나 의로운 행적과 성령의 은총이 동시에 한 사람 안에 함께 올 때 그 둘은 함께 그 사람을 복된 삶으로 가득 채워줄 수가 있다.

니사의 성 그리고리오스⁵⁷

심판을 받는 시기가 되면 믿음을 보여준 생활을 한 사람들의 대차대조표에서 부족한 부분을 은총이 또한 보충해 줄 것이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모방하여 완벽한 사람이 되어 우리 믿음을 증명하라고 요구하신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가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라는 것뿐이다. 나머지는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은총이 채워 주신다.⁵⁸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를 드린다. 은총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며 나아가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해 준다.⁵⁹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객관적인 역할만을 하신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다시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데 필요한 일만을 하셨다. 우리의 역할은 주관적이

57. 앞의 책, p. 34.

58. 디도서 3,4-7.

59. 로마서 3,23-26, II 데살로니카 2,13-17.

다. 바울로가 말한 **내적인 인간**⁶⁰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기도와 세례성사와 견진성사와 성체성혈성사, 그리고 교회의 다른 여러 성사를 통해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 보인다. 그러면 **외적인 인간**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이므로써 도덕적인 면에서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 보인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죽을 때 “현실화” 될 것이다. 우리 영혼은 즉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면 우리는 육체와는 별도로 우리가 준비해 왔던 그것을 마치 꿈속에서 사건을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리 맛보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순종을 통해 그리스도와 친분을 계속 유지하는 노력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명해 보였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새로운 몸과 함께 부활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만일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간단하게 대답해 달라는 요구를 받는다면 가장 적절하고 정확한 대답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함으로써 나

60. 1 고린토 2,11.

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기에) “나는 구원 받고 있는 중이다.” 일 것이다.⁶¹ 하지만 우리는 구원 받는 과정의 모든 단계를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이 생명을 주는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준비가 돼 있고 또 열심히 나누려고 노력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실천하시고 가르치신 사랑이다.⁶²

“순간 구원” 이론에 숨어 있는 위험

“순간 구원”이라고 불리는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초대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정교회의 신학에 어긋나는 이론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로마서 10,9의 말씀을 인용한다.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 하느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뿐이라는 사실에 대해 시비를 걸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정교회는 구원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생각에 동조하지는 않

61. 히브리서 5,8-9.

62. 요한 15,9-17.

는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단지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믿는 사람들의 생각에 정교회는 동조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흔히 참으로 감탄할 만하면서도 동시에 몹시도 위협적인 열성을 보인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때 보였던 그런 강한 확신 속에서(우리 주님께서 그런 바위 같은 믿음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도록 만든 바로 그 강한 확신 속에서)⁶³ 그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보인다는 점에서 그들의 열성은 감탄할 만하다. 하지만 그런 주장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문제를 너무 단순화 시킨다는 점에서 또는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너무 공격적이 된다는 점에서 그들의 열성은 위협적이다. “그들은 하느님에 대해 열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 열성은 바른 지식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다.” (로마서 10,2)

구원의 단순화는 이 이론이 자기는 그리스도를 믿는 교인이라고 생각하기를 원하면서도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확신을 보강해 주기 때문에

63. 마태오 16,13-18.

그들이 성화의 과정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돌아가셨으므로 자신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확신하면서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도 괜찮을 것이라고 느끼게 된다. 한편 순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자신들의 방식대로만 믿어야 한다고 집요하게 강요하는 공격성을 보이므로써 다른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주제에 대해 방어적이 되거나 아예 마음을 닫아 버리게 만들 수도 있다. 둘 중 어느 경우라 해도 영적 성장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이 자신의 목적인 사탄의 의도대로 된 것이다. “나는 구원 받았다!”라는 주장은 기도를 드리면서 큰소리로 자신을 칭찬하는 말만 하여 그리스도에게서 겸손하지 못하고 거만하다는 비난을 들었던 바리사이파 사람의 행동을 또한 생각나게 한다. 자기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 “오, 하느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세리의 겸손한 태도는 예수님의 인정을 받았으며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루가 18,9-14)라고 말씀하셨다.

성서를 단편적으로 이해해서는 안되며, 오직 총체적으로

이해해야만 올바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여기저기서 문장 하나씩을 떼어 내어 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문자에 집착하여 성령을 무시하는 것과⁶⁴ 마찬가지로, 바로 그런 태도 때문에 대부분의 히브리 민족이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로마서 10,9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구원을 받기 위해 더 이상 모세의 율법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려고 사도 바울로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 모세의 율법이 피의 계약으로 대체되었으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생각하는 믿음이 유일한 판단 기준이 되었다. 하지만 바울로는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해서 율법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고 로마서 3,31에서 분명하게 밝혔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태오 5,17에서 이점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장해야만 한다. 로마서가 주는 메시지는 이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경우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미래 시제)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

64. II 고린토 3,6.

스도를 모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랑은 십계명과 율법의 요약이다.⁶⁵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바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투쟁을 요구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는 충성스러운 군인답게 고난을 달게 받으라고 충고했으며 운동선수처럼 규칙대로 경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II 디모테오 2,3-5). 그는 또한 속임수를 쓰는 악마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완전무장을 하라고(에페소 6,11),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위해서 힘쓰라고(필립비 2,12) 말했다. 바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우리 구원은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도 더 가까이 있다고(로마서 13,11) 강조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성사, 성체성혈성사, 그리고 믿음의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사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는 그만큼 더 구원에 가까이 다가간다는 의미이며, 지상에서의 삶이 끝나고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마쳤을 때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이다. 우리에게 목숨이 붙어있는 한 우리는 아직도 하느님의 길에서 벗

65. 로마서 13,8-10.

어날 가능성이 있다. 오직 끝까지 참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마르코 13,13, 요한복서 2,10).

순간 구원 이론은 공식적으로 “오직 믿음에 의한 정당화”⁶⁶로 알려져 있다. 정교회는 믿음에 의한 정당화를 넘어선 믿음에 의한 성화를 주장하며 “오직”이라는 단어를 거부한다. “오직”이라는 단어는 믿음을 보이거나 증명할 만한 행동이나 행적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개념을 강조했던 사람은 서방 교회의 사제였던 마틴 루터였는데, 그는 서방 교회가 행적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16세기에 이르러서는 면죄부까지 판매하므로써 구원을 돈으로 사거나 얻을 수 있다는 인상을 심어준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마음으로 이 개념을 도입했던 것이다. 루터의 우려는 정당하였으며 그의 의도는 좋았다. 그러나 개신교에 의한 종교개혁의 시초가 된 그의 신학은 단단히 묶여 있어야 할 입으로 고백한 믿음과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삶의 필수 요소들 사이의 연결 고리를(야고보서 2,14-26) 끊어놓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66. 일반적으로 이 이론은 종교개혁 당시 마틴 루터가 생각해낸 것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기원후 1세기 이단들의 주장 중의 하나였다. 제임스서의 대부분이 이런 이단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쓰여졌다. Cronk, p. 233을 볼 것.

“오직 믿음에 의한 정당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1) 믿음을 선언한 후에는 선한 행적들이 자연적으로 뒤따라오게 되어있지만 그렇다고 이 선한 행적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아니다라는 자세이거나, 2) (하느님의 선물인) 믿음을 선언한 후에는 성령이 그 사람의 생활을 변화시켜 줄 것이며 그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자라게 해 줄 것이라는⁶⁷⁾ 자세 중의 하나를 취한다. 전자는 매우 애매모호하며 초대 교회가 가르쳤던 긴박감이 부족하다. 불행히도 우리는 흔히 그 필요성을 확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도 반드시 하지는 않는다. 후자는 우리 자신에게는 짐을 전혀 지우지 않고 모든 짐을 하느님에게만 지우려 하며 자유 의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구약과 신약 성서는 아담과 하와의 예에서부터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까지는 시력이 회복되지 않았던 소경의 예에서 보듯이(요한 9,7-11)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계획은 우리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져야만 효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히브리서는 하느님의 백성들이 보여준 믿음의 본보기

67. J. Leslie Dunstan, *Protestantism*, p. 208-210.

를, “그들은 여러 나라를 정복하였고, 정의를 실천하였고, 약속해 주신 것을 받았고, 사자의 입을 막았으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히브리서 11,32-39) 등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언급하고 있다. 그들은 단지 믿는다는 말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자신들의 생활 방식에 의해(행적으로) 증명해 보였다.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

우리가 하느님을 위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보여주는 방법은 굶주린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또 영적으로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혈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고, 병든 사람을 돌보아 주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가 주는 것이다.⁶⁸ 예수님께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당신에게 해 준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이는 어쩌다 한 번씩 형식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하며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활

68. 마태오 25,31-46.

동이 하느님의 일로 채워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항상 “이런 경우 예수님께서서는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만 한다. 그리고 나서는 이에 합당한 행동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맞게 될 심판을 매 순간 생각하면서 산다면 것처럼 쉽게 죄를 저지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아가톤 성인은 말했다.⁶⁹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당신을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⁷⁰ 무관심은 거부와 마찬가지로이다. 요한 묵시록 3,16은 하느님께서서는 미지근한 사람을 입에서 뱉어버리실 것이라고 경고한다. 미지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정도의 성의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고, 그리고 그 선택을 우리 행동이나 결정으로 증명해 보이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69. Chrysostomos, p. 94.

70. 마태오 12,30.

로마서 5장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느님의 은총이 거저 주어진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6장에는 은총을 받고 난 후에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며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 그리고 영원한 삶을 향해(6,22) 끊임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하느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명하거나 보여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이 구원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구원을 살 수는 없다. 사실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구원은 돈으로 살 수도 얻을 수도 없는 것인데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이는 분명 선물이다. 하느님과 맺은 **피의 계약**으로 인해 이 값진 선물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보이는 삶을 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 값진 선물을 받는 것은 아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죄가 전혀 없어야만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삶의 단면들인 행적들은 단지 믿음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영적 성장을 보여 주기도 하는데, 행적 없이는 영적 성장이 불가능하다. 영적인 삶이란 영적 수준에서 작동하는 삶으로 기도하고 하느님의 진리에 대해

명상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느님의 일을 행하며 우리가 어떤 사람이거나 어디에 있느냐에 관계없이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보물을 바치는 삶을 의미한다. 이런 믿음의 생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꾸준히 성장하며 이 세상에서 시작되어 영원토록 지속될 하느님과의 풍요롭고 흥미진진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 하느님과의 관계는 완전한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 주시게 될 흰돌 위에 쓰여진 이름 속에 반영될 것이다.⁷¹ 하지만 그 복된 곳에서는 질투도 경쟁도 없을 것인데, 그 이유는 각 관계의 특별한 자질들이 오직 하느님과 당사자만이 아는 비밀이기 때문이다.⁷²

천국의 문을 연 사건

성 대 그리고리오스

비록 구약의 의인들이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의롭게 살았다 해도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써 천국의 문을 열기 전까지는 그들은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의롭게 살았지만 오랜 세월을 가슴 조이

71. 요한복서 2, 17.

72. Ware, p. 183-185.

며 기다린 후에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투덜거렸다. 그들은 포도밭에서 힘들게 일했지만 죽은 후에는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에 머물러야만 했다. ... 오랜 세월을 지하에서 기다린 후에야 그들은 드디어 기쁨이 넘치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마감 한 시간 전에 와서 일한 우리들은 투덜거릴 이유가 없다. 우리는 중재자이신 메시아가 오신 후에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순간 천국으로 인도되기 때문이다. 구약의 의인들이 오랜 기다림 끝에 겨우 받을 수 있었던 그것을 우리는 즉시 받는다.⁷³

심판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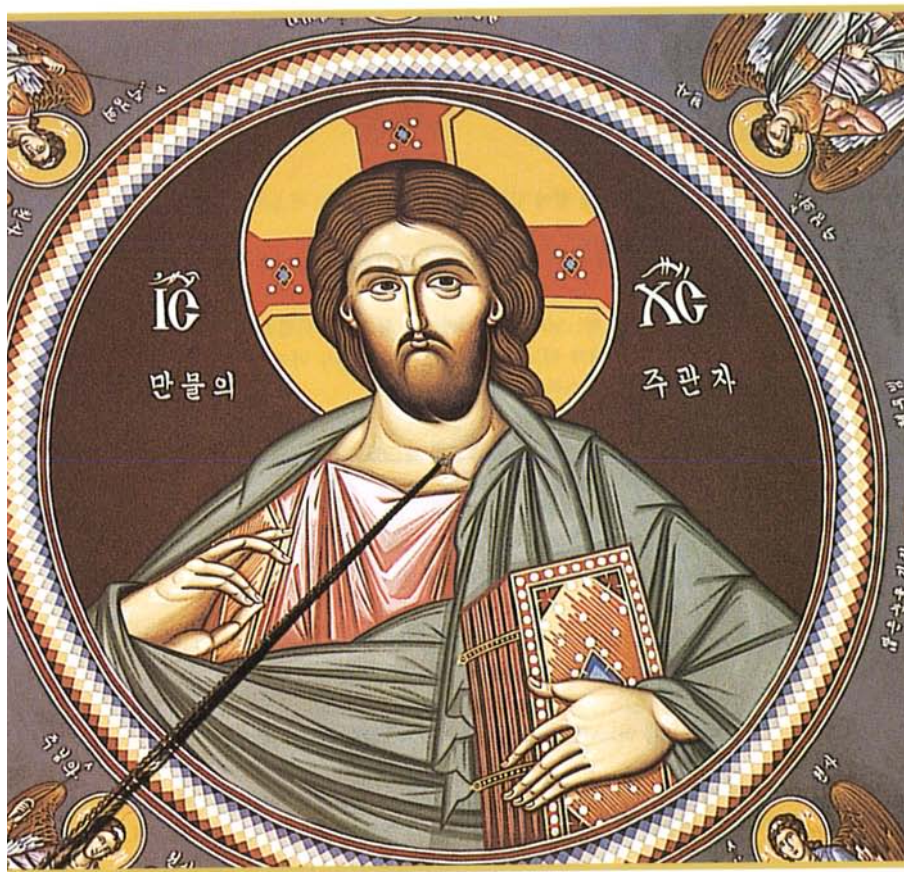
성 요한 크리스소스톰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나면 우리는 두려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며, 우리가 행한 모든 행동을 계산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벌을 받게 되겠지만 이 짧은 생애 동안 우리 영혼을 위해 이로운 일을 한다면 왕관과 온갖 좋은 것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73. Toal, 제1권, p. 382.

항상 염두에 두고 마음으로 믿으면서 우리는 이런 우리의 믿음에 반대되는 사실들을 말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하도록 합시다. 덕의 길을 걸음으로써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좋은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자비를 통해 우리가 받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심판대 앞으로 다가가도록 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와 항상 또 영원히 영광과 찬양을 바칩니다. 아멘.⁷⁴

74. 앞의 책, 제2권 p. 25.



만물의 주관자(Pantokrator), 한국 정교회 성 니콜라스 서울 성당의 천장화.

그리스 성화 작가들의 1994년 작품.

복음서에 쓰여진 진리에 따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만물의 지배자이시며 전능하신 그리스도(로마서 2,16). 이 성화는 구원의 과정에서 세 번째 단계, 즉 우리 모두는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임종을 맞이한 아가톤 성인은 눈을 크게 뜨고 하늘만을 응시한 채 삼일 동안 침대 위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다. 삼일째 되던 날 그가 약간 기운을 회복하자 그를 둘러싸고 있던 수도사들이 지난 며칠 동안 그의 영혼이 어디에 있었느냐고 물었다.

“하느님의 심판대 앞에 있었지.”라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스승님, 두려우셨습니까?” 수도사들이 당황해서 물었다.

“난 평생 동안 하느님의 법을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했었지. 그러나 난 인간이야. 내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렸는지 어찌 알 수 있겠나?” 성인은 고통스런 목소리로 대답했다.

“선생님의 행적이 하느님을 즐겁게 해드렸는지 확신하실 수가 없다고요?” 수도사들이 놀라 말했다.

“하느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확신할 수가 없지. 인간의 판단 기준과 하느님의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거든...” 성인이 대답했다.

수도사들이 자신들의 영혼에 유익한 다른 것들에 대해 물어 보려고 했지만 성인은 더 이상 질문하지 말라고 고개를 저었다.

“나는 지금 하느님을 뵈고 있는 중이라네.” 그의 입술이 속삭였다.

성인의 얼굴이 빛나기 시작했다! 그의 제자들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리 가는 기쁨을 안고서 영원한 삶을 향해 이 험된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았다.

크리소스토모스 대신부

‘사막의 교부들’에서

제 3 장 천국으로 가는 길

축복 받은 상클리티키 성녀는 수녀들에게 “하느님 안에서의 삶을 시작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지만 나중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된다.”라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녀는 이렇게 설명했다. “사람들이 불을 지피려 할 때 처음에는 매운 연기 때문에 기침을 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결국에는 목적인 바대로 불을 지피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성한 불을 자신의 내부 속에 지피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애쓰고 고생한 다음에야 이 일을 성사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불이 이미 타올랐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루가 12,4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뭔가 해 보려고 연기 때문에 괴로워도 처음에는 참으려 합니다. 하지만 금방 지겨움을 느끼고 그 일을 그만 두고 맙니다. 그들은 끝까지 견디려는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중도에서 포기하는 겁니다.”

크리스스토모스 대신부
‘사막의 교부들’에서

쉽지 않은 길

하느님의 나라로 가는 길은 자주 울퉁불퉁하며 때로는 위험하기까지 하다.⁷⁵ 하지만 그 길은 값진 진주로(마태오 13,46) 우리를 인도해 준다. 그런 훌륭한 보물을 손에 넣기

75. 마태오 11,12.

위해서라면 우리는 어떤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은 다음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 믿기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구세주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영원히 머무시는 곳으로 가는 유일한 길⁷⁶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단계이다. 우리는 니케아 신경을 외울 때마다 이 믿음을 선포한다.

그리고 또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세대에 앞서 성부로부터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이시며, 만물이 다 이 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믿나이다.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성신으로 또 동정녀 마리아께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심을 믿으며….

우리는 언제라도 이 믿음에 도달할 수 있다. 우리 목숨이

76. 요한 14,6, 1 디모테오 2,4-5.

붙어있는 한 아무리 늦게 믿음을 갖게 된다 해도 그 믿음이 진실하다면 너무 늦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⁷⁷ 하지만 우리는 언제 우리 생명이 끝날지 알 수가 없다. 죽음은 항상 예고하고 찾아오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고백을 빨리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좋다.⁷⁸ 또한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우리는 그만큼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더 커지며 나중에는 믿음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2. 믿음을 증명하기

사는 동안 모든 일에서 예수님을 본보기로 삼아 그분을 모방하려고 노력하면서 믿음을 증명하는 단계이다. 정교회의 거룩한 성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이런 삶에 대한 토대를 제공해 준다. 각종 성사는 하느님의 은총을 전해 주는 도구들이며, 이것들이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가는 길에서 만나는 어려움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세례 성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일부

77. 마태오 20,1-16.

78. 마르코 9,36-37, 10,13-16.

가 되게 해 준다.⁷⁹ 거룩하다는 단어는 하느님을 위해 도려내지는 것을 의미한다. 세례는 우리가 이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면⁸⁰ 우리를 세상에서 떼어 내어 하느님의 일부가 되도록 만들어 준다.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서 나와 육체적으로 세상에 태어나듯이 우리는 세례를 통해 영적으로 태어나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선다. 세례 성사를 집전하면서 어느 순간에 이르면 사제는 세례조 물 위에 입김을 불어 넣는데 이는 그 세례 성사를 통해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새로운 삶이 전달되었음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다시 태어나 모든 동물들이나 다른 살아있는 생물들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라고, 하느님 자신의 삶을 살라고 요구하신다. 이 삶은 하느님의 성령이신 하느님의 입김에 의해 주어진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이미 이 입김을 우리에게 주셨으며(창세기 2,7), 당신의 모습과 당신의 자유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 더욱 더 하느님과 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입김 때문에 인간은 항상 자기 자신을 뛰어넘

79. 1 고린토 12,13.

80. 골로사이 1,18-23.

어 참 인간이 되라는 요구를 받으며, 인간은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할 때만이 참 인간이 된다. 인간은 죄를 지을 때 하느님의 이 입김을, 하느님의 함께 하심을 잃어버린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인 세례의 물 속에서 이를 다시 얻을 수 있다. 죽음의 원인인 죄가 마치 노아의 홍수 속이나 홍해바다 속에 빠지듯이 세례의 물 속에 빠져 익사하기 때문이다. 세례의 물로부터 참된 생명이, 하느님의 영원하신 생명이, 생명을 주시는 성신을 통해 솟아오른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생명이며, 하느님의 아들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숨을 성부께 드리고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숨을 주시기 위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다.⁸¹

세례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의 시작이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먼저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세례 성사를 통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결과에서 풀려나고 우리 자신이 개인적으로 지은 죄에서도 깨끗해진다. 우리는 깨끗한 기록을 받게 되며 구원 받을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러나 세례가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

81. Olga Dunlop, *The Living God*, 제1권, p. 223.

며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⁸² 이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세례는 우리에게 길을 떠나게 했을 따름이다.

만일 우리가 어른이 되어 스스로 원해서 또 기쁜 마음으로 세례를 받는다면, 그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믿음의 표시이다. 사도 바울로는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자동적으로 의롭게 되지는 않는다고 기록했다. 다시 말하면 할례는 하느님께서 모세와 맺으신 언약인 율법을 잘 지키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겹으로 드러난 표시일 때만 가치가 있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받으나 마나 한 할례가 된다고 말했다.⁸³ 이와 마찬가지로 세례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에서의 자리 하나를 보장해 주는 기적적인 행위는 아니다. 세례는 우리가 마음 속으로 받은 은총이 겹으로 드러난 표시이며 하느님을 닮아가는 과정의 시작일 뿐이다. 세례를 받은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최대한으로 닮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데 대단한 용기와 참을성 없이는 이 일을 해낼 수 없다.

세례, 견진, 성체성혈성사, 그리고 성유성사는 우리에게 은총을 전달해 주는 중요한 운반 장치들이기에 정교회는

82. 마태오 3,13-15, 28,18-20, 요한 3,5.

83. 로마서 2,25-29, 4,11-12.

어린이들에게도 이 성사들을 허용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왜 필요한지 알지 못하면서도 육체가 자라는데 필요한 자양분을 섭취하듯이 자신들의 영혼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영적 자양분을 이 성사들을 통해 섭취한다. 우리가 어린이일 때 세례를 받았다면 그 세례는 우리 부모와 또는 대부모의 믿음의 표시이며, 그들에게는 우리가 자라는 동안 영적으로 영양분을 공급해줘야 하는 책임이 있다. 사랑과 믿음이 가득한 환경 속에 있다면 누가 믿음이 언제 시작했는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으며, 누가 은총의 힘에 한계를 그을 수 있겠는가? 성인이 되면 영적인 성장에 대한 책임이 우리 자신에게 넘어온다. 우리는 자신이 받은 세례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음을 확신해야 한다. 세례의 의미와 힘을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며, 세례 받은 날짜를 기억하고 매해 그 날이 되면 성체성혈을 모시는 일도 중요하다. 그리스도에게 우리 자신을 맡겼다는 증거로서 (장식품으로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목에 거는 것도 중요하며, “우리 모두 우리의 온 생명을 하느님이신 그리스도께 맡깁시다.”라고 여러 번 우리에게 권유하는 성찬 예배를 드리는 동안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맡겼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되새기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 이 맡긴 사실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다.

견진성사는 “성령의 선물이 우리에게 왔음을 보증하는 날인”이며,⁸⁴ 그리스도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듯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두 번째 요소이다.⁸⁵ 날인은 진짜임을 나타내는 표시이다. 특정 국가의 날인이 찍힌 서류가 그 자체에 해당 국가의 힘을 지니고 있듯이 어떤 특별한 날인이 찍힌 물건은 그 날인이 대표하는 권위를 지니고 있다. 견진성사를 통해 우리는 성령을 우리 안에 받는다.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는 날인이 우리에게 찍히고 우리가 이에 합당한 행동을 하면 이 날인은 효력을 발휘한다. 우리가 성령과 협조하여 그리스도를 닮아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욱 더 하느님의 권위로 행동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가파르고 좁은 길을 허덕이며 올라갈 때 성령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고 인도해 주면서 우리의 노력에 응답해 준다. 이 영적인 권위는 성령과 친교를 갖는 사람들에게 인정된 것이다.⁸⁶

84. 견진 성사에서 사용되는 축성된 기름이 성신의 선물을 전달하는 “날인”이다. II 고린토 1,21-22, 요한 1서 2,20.

85. 요한 3,5.

86. 1 고린토 2,4-5.

감사의 성사(성체성혈성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해주므로써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의 일치를 끊임없이 갱신시켜 주고 그 성사가 제공하는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해 준다.⁸⁷ 감사의 성사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 번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일부로 불멸의 양식인 생명의 나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바로 이 피가 우리 임금의 모습을 우리 안에 더욱 뚜렷하게 새겨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며, 우리 영혼에 끊임없이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어 우리 영혼이 쇠약해지지 않게 해 준다. ... 우리가 올바르게 받아 마시기만 하면 이 피는 우리에게서 마귀들을 멀리 쫓아주고 다시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해 준다. 그 대신 이 피는 우리 곁으로 천사들과 천사들의 주인이신 주님을 불러들인다. 마귀들은 주님의 피가 보이는 곳에서는 도망을 치지만 천사들은 그곳으로 달려들기 때문이다. 이 피는 우리 영혼을 구원해주는 피이다. 이 피가 우리 영혼을 씻어주며 이 피로 인해 우리 영혼은 아름다워지고 빛이 난다. 이 피로 인해 우리 이해력은 불보다 더 반짝거리며 우리 영혼은 금보다 더 환한

87. 마태오 26,26-28, 루가 22,19-20, 요한 6,56.

빛을 뿜어낸다. 그리스도께서 이 피를 흘리셨기에 우리는 천국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톰⁸⁸

성유성사는 육체적인 질병과 영적인 질병을 치유해 주는 도구이다.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 육체나 영혼이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에는 언제라도 우리는 사제에게 성유 성사를 거행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⁸⁹ 우리가 건강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여행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

우리가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길에서 벗어날 때마다(어떤 형태로든지 예수님의 본을 따르지 못할 때마다) 교회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부른다. 고백성사를 통해 우리는 죄를 사함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를 받는다. 참된 고백은 새롭게 세례를 받은 사람의 죄 없는 상태로 우리를 돌려 놓으며, 고백 성사를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 하느님

88. Philip Schaff, "Homily XLVI of the Gospel of John," *Nicene and Post 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Vol. XIV, p. 166-167.

89. 야고보서 5,13-15.

계로 가는 길 위에 다시 올려 진다.⁹⁰ 중대한 죄를 지어 하느님으로부터 철저히 멀어졌을 경우에도 고백은 극적이면서 인생을 바꿔놓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고백은 하느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 막은 장벽(죄로 인해 생긴 장벽)을 제거할 방법을 제공하며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을 다시 되찾을 기회를 준다.

우리가 동반자와 더불어 서로 도와가며 하느님계로 가는 길을 가려고 마음 먹을 경우 교회는 **결혼성사**를 거행하여 우리의 결합을 축복해 주고 축성해 준다.⁹¹ 훌륭한 결혼일 경우 한 쪽은 다른 쪽이 부족한 면을 보충해 줄 수 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함께 하면 혼자였더라면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방법으로 온전해진다. 하느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이라는 상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이루어 당신의 나라를 가득 채울 사람들을 생산해 내도록 계획을 세우셨다.⁹²

하느님으로부터 특별한 소명을 받은 남자들은 **신품성사**를 받은 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그들이 양떼 속에 남아 있도록 도와주는 봉사생활을 한다. 이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물

90. 요한 20, 23.

91. 창세기 2, 24, 마태오 19, 4-6.

92. 창세기 1, 27-28.

을 하느님께 바치는 직무를 수행하던 구약의 레위 계급이 아니다. 이들은 멜기세덱의 사제 직분을 이어받으셨던⁹³ 그리스도의 대사제직을 계승하는 사람들로서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마지막으로 드리셨던 피의 제사를 성찬 예배를 통해 끊임없이 하느님께 바치는 사람들이다. 사제는 “그 사제 직분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직분과 다름없는 것이기에 이 피의 제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 제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영원히 살아 있으며 또 영원히 수행된다.”⁹⁴

그 외에도 교회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룩한 사람이 되려는 우리의 노력을 도와주기 위해 기도와 금식과 예배와 지식(지식이란 우리 교회에서 전해 내려오는 모든 성전들, 즉 성서와 교부들의 글과 공의회와 결정사항과 성화 연구서와 예전서 및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 사용되어온 모든 전달 수단들을 의미한다)을 영적 도구로 제공한다.

93. 창세기 14,18, 시편 110,4, 히브리서 4,14-7,28, 마르코 3,14-15, 마태오 28,16-20.

94. Alexander Schmemmann, *The Eucharist*, p. 115.

3. 심판에 직면하기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을 얼마나 배우려고 노력했으며 또 얼마나 이해하려고 했느냐에 따라,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따라 하느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⁹⁵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의 숨겨진 신비를⁹⁶ 꿰뚫어 볼 수 있는 특권과 책임이 주어진 다. 하느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기대가 크시므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하느님에게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그리스도처럼 생활하는 본모습을 보여야만 한다.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하느님의 빛이 희미하게 사탄이 세워 놓은 장벽을 간신히 통과 할 정도일 수도 있다. 인간은 누구나 모든 것을 아시며 온통 사랑이시며 지극히 공명정대하신 그리스도의 공정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언젠가는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축복이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한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심판하게 된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우리 자신이 판단되는 기

95. 로마서 2,1-16.

96. 1 고린토 2,6-7.

준으로 사용될 것이며,⁹⁷ 생명의 책이 펼쳐질 때(요한복서 20,12-13)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낱낱이 기억할 수 있게 된다. 하느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는지 구태여 남에게서 듣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 알게 된다.

사악한 자들은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큰 구원을 외면했는지 또 얼마나 큰 사랑과 자비를 멸시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기에 하느님의 빛나는 사랑과 영광이 그들에게는 불의 강이 될 것이다. 이 불의 강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옥좌에서 솟아나와 그들을 휩쓸어 갈 것이며 그들의 양심은 이를 불타는 석탄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의로운 사람들은 똑같은 불을 영적인 빛과 깨우침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로 인해 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에 휩싸인다. 왜냐하면 이 불이 그들에게는 그들이 부족한 것을 고쳐주는 정의의 태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가 되면 의로운 사람들은 앞으로 나가 완전함과 지식에 있어서 영원히 성장할 것이다(말라기 4,1-2).⁹⁸

97. 마태오 7,1-2.

98. Lazar Puhalo, *The Soul, the Body and Death*, p. 45.

순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심판을 무시하면서도 구원 받은 사람들은 부활하여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의미의 부활을 강조한다.⁹⁹ 다시 말하면 그들은 스스로 “구원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저주를 받기 때문에 실제적인 심판의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이론은 잘못된 합리화 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지 하느님께서 재림 시에 주시게 될 깨우침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이들은 심판은 오직 구원 받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구원 받은 사람들만이 그들의 생활 중에서 “하느님의 나라에 적합한 귀한 것들”과 “가치 없는 것들”로¹⁰⁰ 나누어지는 평가를 받아 하늘나라에서의 위치가 결정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로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는 날에는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한 일들이 숨김없이 드러나서”(II 고린토 5,10-11)라고 기록하므로써 우리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하

99. Jerry Falwell, ed., with Ed Dobson and Ed Hindson, *The Fundamentalist Phenomenon, The Resurgence of Conservative Christianity*, p. 21.

100. D. Guthrie, *The New Bible Commentary*, p. 1080.

게 밝혔다. 하늘에서도 처벌이 있을 것인가? 만일 우리가 단지 믿음을 고백하므로써 그 순간에 구원을 받는다면 심판의 결과에 따라 차지하게 될 위치에 대해 왜 걱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천국에서는 어느 자리라도 다 좋은 자리일 텐데 말이다.¹⁰¹

심판은 진정 있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절망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¹⁰² 하느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또 우리가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되려고 진심으로 노력하면 구원을 받을 것임(마태오 24,13) 우리는 알고 있다.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들은 과정을 거쳐 항해할 것이며 어떤 심판도 받지 않은 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갈 것이다(요한 5,24). 이런 이유로 비록 이 세상에서의 삶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우리는 내적으로는 언제나 기쁨에 넘쳐 있다.¹⁰³

101. 시편 84,10.

102. 로마서 8,24.

103. “정교회는 구원이 부정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긍정적인 사실이라고 믿는다. 구원은 단순히 마귀의 속박과 마귀가 지배하는 죄, 사망, 그리고 부패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4. 보상 받기

예수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을 보여주는 생활을 한 사람들은 세상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기쁨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¹⁰⁴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시고 생명의 월계관을 씌워 주실 것이며¹⁰⁵ 각자의 고유 이름이 적힌 흰돌을 나눠 주실 것이다. 그 복된 곳에는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¹⁰⁶ 자신들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바친 세례 받은 교인들에게는 하늘나라가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생명을 얻는 것이다.” Maximos Aghiorgoussis, “The Theology and Experience of Salvation,” *The Greek Orthodox Theological Review*, Vol. XXIII Winter 1977, No. 4, p. 414. 그러나 Christoforos Stravropoulos 대신부는 *Partakers of Divine Nature*에서 이렇게 썼다. “구원의 길 위에 있는, 다시 말하면 하느님과 개인의 일치로 인도해 주는 길 위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두려움과 희망 사이를 왔다갔다 해야 한다. 두려움은 우리를 억누르지만 동시에 우리를 하느님 쪽으로 밀어 준다. 희망은 우리를 힘으로 채워 주며 성부의 사랑 쪽으로 우리를 끌어 당긴다.” P. 54.

104. 마태오 25,34.

105. 야고보서 1,12, 요한묵시록 3,5.

106. 요한묵시록 21,4.

하신 약속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알기에 기쁨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믿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그는 아직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하느님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 우리가 세속생활을 거부하면 할수록 그만큼 우리의 영적생활은 풍성해지며 우리는 영적생활의 열매를 맛볼 수 있게 된다(갈라디아 5,22).

사악함은 사악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지옥의 구렁이에 떨어지기 전에 이미 그들에게 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지만, 반면에 덕은 지상에서 덕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선물을 받기 전에도 그들에게 기쁨을 제공한다. 그래서 덕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희망과 끝없는 기쁨 속에서 사는 것이다.

성 요한 크리소스톰¹⁰⁷

하느님께서서는 장차 우리가 천국이나 지옥에서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쫓겨나 주

107. Schaff, "Homily XL," p. 147.

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보지 못할 것이며(II 데살로니카 1,9) 악마와 그의 졸도들을 가두려고 하느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고통의 불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¹⁰⁸

하느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미움을 받고 그리스도에게서 “나는 네가 누구인지 모른다”(마태오 25,12)는 소리를 듣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조차 없다.

성 요한 크리소스톰¹⁰⁹

이는 하느님께서 내리신 벌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그분을 거부했기에 오는 당연한 결과이다.¹¹⁰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대로 받게 되기 때문이다.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험해서 그리로 찾아드는 사람이 적다(마태오 7,14).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 인생의 기쁨과 온갖 역경을 헤치고 한발 또 한발 위로 올라가면서 좁은 문을 통해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왕국으로 들어

108. 마태오 25,41.

109. Schaff, “Homily XXIII on Matthew,” *NPNF* Vol. X, p. 164.

110. 요한 12,48.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이 길 위에 올려졌고 우리 눈은 구세주에게 고정되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사랑과 믿음의 정도에 비례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각종 성사들이 그 길을 가는 동안 우리를 도와주는데 우리가 진심으로 참회하고 고백하면 우리를 새롭게 해주며 잠시 벗어났던 길 위에 우리를 다시 올려 놓는다.

우리는 모두 다르다. 우리는 각자 다른 환경에서 오르막 길을 향해 출발한다. 어떤 사람은 풍성한 사랑을 받고 훌륭한 어른의 지도를 받으며 물질적인 풍요까지 누린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결핍된 상태에서 외롭게 투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비옥한 땅에서 자랄 수 있는 축복을 받아 일찍부터 행진을 시작한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메마른 땅에서 성장해야 하므로 숨을 쉬기에도 힘든 상태에 있으며 생을 마감할 무렵이 되어서야 겨우 하느님에 대해 눈을 뜬다. 어떤 종류의 각본도 가능하다. 인생이라는 여행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같은 자원을 받지 않았으므로 하느님께서도 우리 각자에게서 똑같은 결과를 기대하지는 않으신다. 우리는 각자 자유의사에 따라 자신만의 고유한 방법으로 하느님께 반응하는 기회를 부여 받았다. 하느님께서서는 봉사하라고 우리 각자에게 나

누어 주신 그것을¹¹¹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사용하기를 요구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서는 적절하게 심판을 하신다. 우리가 투쟁하면서 완성의 길을 얼마나 멀리까지 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느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며 또 하느님의 아들을 구세주로 믿으면서 죽을 때까지 오르막길을 올라가려고 진정으로 노력했느냐 하는 사실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하나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느님께서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여행을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¹¹² 하느님께서서는 지극히 영광스럽고 막강한 당신의 나라를 살짝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였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받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드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엿보는 기회는 하느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닫는 순간들을 통해 주어질 때가 있는데 창조된 세상의 아름다움은 하늘에서

111. 로마서 12,4-8.

112. 마태오 28,20, II 고린토 1,3-5.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을 암시해 준다.¹¹³ 하느님의 나라를 엿보는 기회는 때로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 주어지기도 한다. 고통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며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쏟고 기진맥진해 있을 때 하느님께서 우리를 받쳐 주시고 위로해 주심을 참으로 느낄 수 있게 된다.¹¹⁴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과 그곳에서 제외되는 고통

시리아의 성 에프렘

만일 우리가 임금의 오른쪽으로 인도된다면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게 될까요? 의로우신 하느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안아 주실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갖게 될까요? 아브라함, 이사악, 야곱, 모세, 노아, 욥, 다니엘, 거룩한 예언자들, 사도들, 순교자들, 그리고 살아 있을 때 하느님을 기쁘게 해 드렸던 모든 이들을 그곳에서 만나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곳에서는 여러분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며, 그들의 생활을 존경해 왔으며,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이 여

113. 로마서 1,19-20.

114. II 고린토 1,8-10.

러분에게 다가와 손을 잡아 주면서 구원 받은 것을 함께 기뻐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할까요? 임금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 줄 “너희는 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니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마태오 25,34)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 느끼게 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아름다운 나라와 여러분이 자나 깨나 그리던 왕관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야고보서 1,12)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안전할 것이며 더 이상 걱정해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권한을 받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이 계신 곳에서 영원히 머물면서 모든 빛의 근원을 소유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곰곰이 되새겨 보십시오. 그때가 되면 “낮에는 해가 너를 비출 필요가 없고 밤에는 달이 너를 비출 필요가 없을”(이사야 60,19) 것이며, 그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비추어 주는 빛이 되며 여러분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 하느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이 어떤 것인지 보십시오.

그런 후 죄인들이 저 무서운 심판대 앞으로 끌려 나갈 때 그들이 어떤 종말을 맞이하게 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의로우신 심판관 앞에 끌려 나간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곳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두려움을 느끼게 될까요? 임금의 원편으로 돌려 세워질 때 그들은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하느님께서 분노하신 음성으로 “이 저주 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의 졸도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마태오 25,41)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끔찍한 어둠이 그들을 덮칠까요?¹¹⁵

우리 자신이나 남들을 심판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법에 대하여

성 대 그리고리오스

수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의 수는 지극히 적습니다. 그리고

115. Toal, 제1권, p. 13.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느님께 봉사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하느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첫째는, 그 누구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부름을 받기는 했지만 하늘나라에 들어가도록 선택을 받을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자기 이웃이 죄악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절대로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비가 얼마나 풍성한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¹¹⁶

116. 앞의 책, p. 365.



지하로 내려가신 주님. 한국 정교회 성 니콜라스 서울 성당의 벽화.
그리스 성화 작가들의 1996년 작품.

이 성화는 구원의 과정에서 넷째 단계인 “보상 받기”를 보여 준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선택한 대로 받게 된다. 그리스도가 하느님과 우리 사이를 재결합시켜 주는 길을 되찾아 주시는 분이시라고 믿고 또 그렇게 생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서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몸은 신성과 여전히 하나인 채 요셉과 니코데모에 의해 무덤에 묻히셨다. 그분의 영혼은 신성과 하나인 채 지하 세계로 내려가셔서 죽음을 누르셨다(1 베드로 4,6과 에베소 4,9-10). 그분이 그렇게 하신 목적은 당신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지하로 내려가신 그리스도의 성화를 보면(이 성화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성화라고도 불린다) 아담과 하와가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성화의 아래쪽 검은 부분에 사슬로 묶여 있는 인물이 마귀이며, 이는 마귀가 이제는 더 이상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마귀가 인간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을 통해서였는데 이제는 그 “독침”이 사라지고 말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여전히 죽음을 통과해야 하지만 마귀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서 죽은 사람들을 붙잡아 둘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양 옆에 서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 천국의 문을 열어 주시기 전에 살다가 죽은 성경 속의 인물들이다. 그리스도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 왕과 솔로몬,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다. 그리스도의 왼쪽에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그려져 있다.

불멸의 생명을 지니신 분이시여, 당신은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셔서 당신의 눈부신 신성의 빛으로 지옥을 살해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지하에 머물던 죽은 사람들을 살리셨을 때 하늘의 모든 세력들이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느님 그리스도시여, 당신께 영광을 바칩니다.”라고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성 대 토요일 조과 트로파리온

무덤에서는 육신으로 계시고, 지옥에서는 영혼으로 계시는 하느님이시며, 낙원에서는 뉘우친 강도와 함께 계시며, 성부와 성신과 함께 왕좌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시여, 당신은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지만 그 어느 것도 당신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프로스코미디 예식

마치는 말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은 생명이라는 선물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질문이다. 이 책이 의도한 바는 하느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 세우신 신성한 계획을 교인의 입장에서 짧게 정리해 봄으로써 삶의 목적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영원한 진리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아들을 통해 전해진 구원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는 단순하면서도 모든 것을 포용한다. 이는 지붕 위에서 큰소리로 외쳐져야만 하며,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수준으로 집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반복해서 가르쳐져야만 한다. 이는 우리 생활의 모든 부분에 스며들어야 하며 우리의 모든 결정에 토대가 되어야 한다.

이 책에서 제시한 가르침들은 독창적인 것들은 아니다.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다리시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 교회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가르쳐왔던 것들이다. 이곳에 실린 기도문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시며 구세주 이심을 믿고 받아들이는데 도움을 주는 것들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이 생명을 주는 지식을 이에 대해 듣게 될 모든 사람들과 나뉘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보이므로써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성장하여 거룩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Aghiorgoussis, Maximos, "The Theology and Experience of Salvation," *The Greek Orthodox Theological Review*, Vol. XXII, Winter 1977, No. 4.

Anderson, David and John Erickson, *The Services of Christmas, The Nativity of our Lord God and Savior Jesus Christ*. Syosset, New York: Orthodox Church in America, 1981.

Backman, Milton V. Jr., *Christian Churches of America, Origins and Beliefs*, Utah: Brigham Young University Press, 1976.

Bettenson, Henry, ed. *The Early Christian Father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6.

Chrysostomos, Archimandrite, tran. *From the Evergetinos on Passions and Perfection in Christ, The Ancient Fathers of the Desert*. Brookline: Hellenic College Press, 1980.

Cronk, George. *The Message of the Bible, An Orthodox Perspective*. New York: St. Vladimir's Seminary Press, 1982.

Dunlop, Olga. *The Living God, A Catechism for the Christian Faith*. Two volumes. Crestwood, New York: St. Vladimir's Seminary Press, 1989.

Dunstan, J. Leslie, ed. *Protestantism*. New York: George Braziller, 1962.

Falwell, Jerry, ed. With Ed Dobson and Ed Hindson. *The Fundamentalist Phenomenon*.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1981.

Guthrie, E., J. A. Motyer, A. M. Stibbs, D. J. Wiseman, eds. *The New Bible Commentary*, Rev.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0.

Halley, Henry H. *Halley's Bible Handbook*, 24th ed.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65.

Haverstick, John. *The Progress of the Protestant, A Pictorial History from the Early Reformers to Present Day Ecumenism*. New York/Chicago/San Francisco: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8.

Kontoglou, Photios. *Ekphrasis*, 3rd ed., Vol. 1. Athens: Aster Press, 1993.

Lossky, Vladimir. *Orthodox Theology, An Introduction*. Crestwood, New York: St. Vladimir's Seminary Press, 1978.

Mary, Mother and Archimandrite Kallistos Ware. *The Lenten Triodion*. South Canaan, Pennsylvania: St. Tikhon's Seminary Press, 1994.

Nellas, Panayiotis. *Deification in Christ, The Nature of the Human Person*. Crestwood, New York: St. Vladimir's Seminary Press, 1987.

Nicozisin, George and Freida Upson. *The Sacraments of the Orthodox Church*. Greek Orthodox Archdiocese of North and South America, 1973.

The Order of the Divine and Holy Liturgy. Brookline, Massachusetts: Holy Cross Orthodox Press, 1987.

Papadopoulos, Gerasimos. *Orthodoxy: Faith and Life, Christ in the Life of the Church*. Brookline, Mass: Holy Cross Orthodox Press, 1981.

Puhalo, Lazar. *The Soul, the Body and Death*. Canada: Synaxis Press, 1985.

Schaff, Philip, ed St. *Nicene and Post 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vol. XIV, St. Chrysostom: *Homilies on the Gospel of St. John and the Epistle to the Hebrews*. Grand Rapids, Michigan: Wm. Eerdmans' Publ. Company, 1989.

—. Vol. X, *Homilies on St. Matthew*, 1991.

Schmemmann, Alexander. *The Eucharist*. Crestwood, New York: St. Vladimir's Seminary Press, 1988.

Smith, R. Payne, trans. *Commentary on the Gospel of St. Luke, by St. Cyril of Alexandria*, Studion Publishers, 1983.

Stavropoulos, Christoforos, *Partakers of Divine Nature*, trans. Stanley Harakas, Minneapolis: Light and Life Publishing Company, 1976.

Toal, M.F., trans and ed. *The Sunday Sermons of the Great Fathers*. Four volumes. Chicago: Henry Regnery Co. London: Longmans, Green, 1957.

Vassiliadis, Nikolaos P. *The Mystery of Death*, trans. Fr. Peter A. Chamberas, Athens: The Orthodox Brotherhood of Theologians, "The Savior", 1993.

Velimirovic, Bishop Nikolai. *The Prologue From Ochrid, Lives of the Saints and Homilies for Every Day in the Year*. Trans. Mother Maria. Four parts. Birmingham, England: Lazarica Press, 1985.

Ware, Kallistos, *The Orthodox Way*. Crestwood, New York: St. Vladimir's Orthodox Theological Seminary, 1979.

Ware, Timothy, *The Orthodox Church*. Middlesex, England-Baltimore: Penguin Books, Inc., 1963.

한국 정교회 역사

교회의 시작

“하나이며 거룩하고 공변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정교회는 1900년에 한국에 전파되었다. 그해 1월에 러시아인 크리스산토스 세헷콥스키 수사 신부가 직장 때문에 한국에 와 있는 러시아 정교회 교인들과 러시아에서 근무하던 중 정교회 교인이 된 한국 사람들의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서울에 도착했다.

1903년 크리스산토스 신부는 서울에 성당을 마련하여 이를 성 니콜라스 성당이라 명명하고 그곳에서 의욕적인 선교 사업을 시작했다. 정교회의 복음에 대한 권위 있는 가르침과 그 예배의 풍부함과 장엄함, 그리고 신비로운 분위기는 많은 한국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교회의 수난

그러나 한국에 들어온 정교회는 그 첫 출발부터 끊임없는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크리스산토스 신부가 한국에 온 후에

발발한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전쟁에서 1904년 러시아가 패하자 일본은 한국에 있던 러시아인들에게 강제 출국 명령을 내렸다. 그리하여 크리스찬토스 신부와 그의 러시아인 협력자들은 러시아로 돌아가야만 했으며 갓 형성된 한국 정교회의 작은 양떼는 목자를 잃은 고아가 되고 말았다.

러시아의 두 번째 선교 사업은 빠벨 이바노프스키 수사 신부에 의해 다시 시작되었다. 그는 1906년부터 1912년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의 정교회에 새순이 돌아나도록 노력했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던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의 정교회 신자들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으며 혹독한 박해를 받았다. 한편 러시아에서는 1917년 혁명이 일어나 볼셰비키 정권이 수립되었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된 러시아 교회는 더 이상 지원을 해 줄 수 없게 되었다고 한국의 정교회에 통보했다. 이제 한국의 정교회는 러시아로부터 지원도 끊기고 다른 지역의 정교회와의 대화 수단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생존을 위해 처절한 투쟁을 시작해야만 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당시 한국의 유일한 사제였던 알렉세이 김의한 신부가 북한에 납치된다. 또한 전쟁 중에 떨어진 포탄에 의해 서울 성당이 크게 파손되었다. 얼마 안 되던 신도들은 뿔뿔이 흩어져 피난을 가버리고 겨우

타오르기 시작한 한국 정교회의 작은 불꽃이 사그라질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교회의 부흥

그러나 머지 않아 기적이 일어났다. 하느님께서 한국 정교회 교인들의 희생과 흔들림 없는 믿음에 상을 내리시며 전쟁의 폐허 가운데에서 한국 정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다. 한국 전쟁에 참여한 그리스군의 종군 사제였던 안드레아스 할끼오뿔로스 수사 신부의 따뜻하고 지칠 줄 모르는 보살핌 덕분에 한국 신도들은 서울에 다시 모였고, 전쟁 고아들은 보호를 받았으며 성당이 재건되었고 수백 명이 세례를 받았다. 한국을 떠나기에 앞서 안드레아스 신부는 한국 신도들 중에서 천거된 보리스 문이춘 신부를 1954년 1월 일본 도쿄의 주교부에서 사제 서품을 받도록 주선해 주었다.

한국에서의 정교회 부흥은 정말로 멀고도 험난한 길이었다. 보리스 문이춘 신부와 그의 협력자들의 초인적인 노력으로 한국 정교회의 “작은 양떼”는 유지되었으며, 한국 정부가 국가 재산으로 편입시키려 했던 교회의 재산도 지켜졌으며, 1968년에는 현재의 위치에 역시 니콜라스 성인에

게 바쳐진 비잔틴 양식의 웅장한 성당이 건립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정교회는 교회 조직상 아무 곳에도 속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하여 한국의 정교회는 많은 기도와 심사숙고 끝에 1956년 성탄절에 소집된 신도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세계 총대주교청 산하로 들어갈 것을 결의하고 세계 총대주교청에 허락을 구하였다. 세계 총대주교청은 이 요구를 받아들여 한국 정교회를 자신의 관할 하에 두었다. 현재 한국의 정교회는 총대주교청의 산하 기관인 뉴질랜드 대주교구에 속해 있으며 1975년부터 수사 신부로 대주교의 한국에서의 대리 직분을 맡아 오다가 1993년 보좌 주교로 승품된 소티리오스 트람바스 주교의 보필을 받고 있는 뉴질랜드의 디오니시오스 대주교의 사목을 받고 있다.

“축복 속에서의” 발전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의 정교회는 여러 방면에서 성스러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 기본적인 예배서들을 비롯하여 신학적인 책들과 영적 성장에 필요한 책들이 약 70여종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다.
- 서울 성당 건물을 중심으로 주위에 선교관으로 사용되는 부속 건물들과 두 개의 소성당이 건립되었다.

- 한국 사제와 지도자들의 양성을 위한 신학원이 설립되었다.
- 부산, 인천, 전주, 그리고 양구군 팔랑리에 성당이 건립되었다.
- 6명의 한국 사제와 1명의 보제가 신학원을 졸업하고 서품을 받았으며, 1998년부터 그리스에서 파견된 암브로시오스 조 그라포스 수사 신부가 서울 성당에서 봉직하고 있다. 또한 1993년에 세계 총대주교청은 1975년부터 한국에서 봉직하고 있는 소트리오스 트람바스 신부를 뉴질랜드 대주교의 보좌 주교로 임명하고 주교 서품을 주었다.
- 서울 북동쪽에 위치한 경기도 가평군에 수도원이 건립되었고 현재 2명의 수녀가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
- 연령별로 교리 공부가 시행되고 있으며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한 수련회가 조직, 운영되고 있다.
- 전 교인들 대상으로 빈곤자와 노인, 그리고 고아와 병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 부산과 인천에서는 그곳에 입항하는 그리스 선원들을 대상으로 사목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 1986년 극동 지방에서의 선교 사업을 관장하는 정교회 동방 선교회가 세계 총대주교청의 결정으로 서울에 설립되었으며 동 선교회는 1996년까지 운영 되었다.
- 1995년 4월에 이루어졌던 바르톨로메오스 세계 총대주교 성하의 한국교회에 대한 첫 사목 방문은 한국의 정교회 교인

들에게는 특별한 축복이었으며 영적 격려의 근원이었다. 또 한 한국정부가 한국 정교회를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 같은 해 서울에 있는 선교관 건물에 신학원 강의실과 기숙사가 증축되었다.
- 1996년에 신학원이 속성 과정으로 운영되었으며 인도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 온 학생들이 강의를 들었다. 수료식 직전에 이들 중에서 네 명의 사제와 한 명의 보제가 서품을 받았다.
-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 정교회 교인들을 위한 성찬 예배가 슬라브 언어로 거행되고 있으며 그들만을 위한 교리 공부도 별도로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례 성사와 결혼 성사 등도 거행되어 진다.
- 그리스로부터 온 자원 봉사자 성화 화가들이 서울 성당과 부산 성당과 두 개의 소성당과 수도원 성당과 묘지에 있는 성당에 성화를 그려 주었다.
- 한국어와 영어로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한국의 정교회를 널리 알리고 있다.



▲ 한국에서의 첫 정교회 성당(190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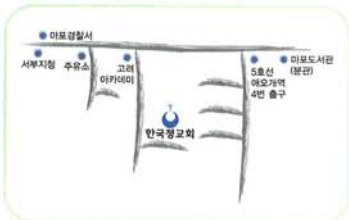
▲ 테오도시오스 러시아 신부님과 일시 방문하신 러시아 주교님, 그리고 교인들을 담은 사진이다. 사진 뒤쪽에 루가 김희준 보제님과 후에 사제가 된 알렉세이 김, 보리스 문 신부님의 모습이 보인다.

성 니콜라스 대성당



서울 마포구 아현1동 424-1
Tel (02)362-7005, 365-3744 | Fax (02)392-7322
www.nicholas.or.kr | e-mail : byzantin@hanmail.net

♣ 찾아오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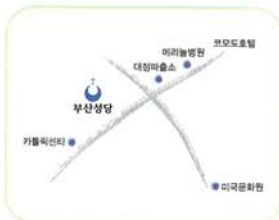
- 지 하 철 : 5호선 애오개역 4번 출구
- 일반버스 : 마포 경찰서 정류장
2, 30, 30-1, 70, 77, 123, 302,
438(마을버스)
- 좌석버스 : 마포 경찰서 정류장
63, 63-1, 718, 720, 1002, 605(공합)

성모 희보 성당



부천시 중구 대청동4가 43-3
Tel (051)462-3819 | Fax (051)466-3746 | 사제관 (051)465-5271
<http://orthodoxpusan.hihome.com>
e-mail : han6004@netian.com

♣ 찾아오시는 길



성 바울로 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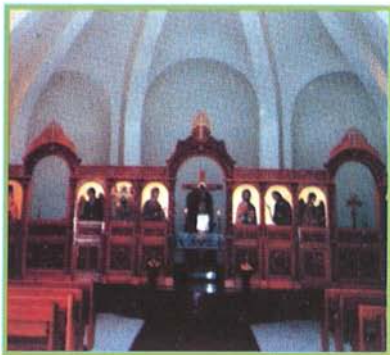


인천시 남구 간석동 427-3
Tel (032)426-9553 | 사제관 (032)511-1808
www.orthodoxinchen.or.kr | 부인회 www.orthodox_philo.com
e-mail : latherna@hananet.net

♣ 찾아오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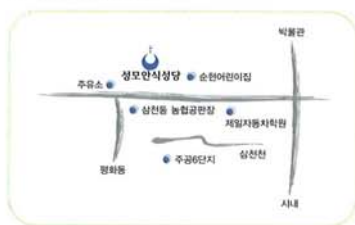


성모 안식 성당



전주 완산구 삼천동 2가 산1-24
Tel (063)222-1095 | 사제관 (063)225-5461
e-mail : ockjunju@hanmail.net

♣ 찾아오는 길



한국 정교회 교구 성당

성 안드레아 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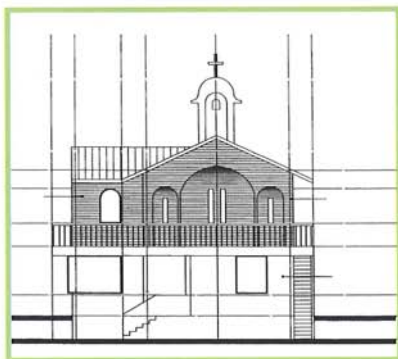


강원도 양구군 동면 팔랑 1리 4번(목장마을)
Tel (033)481-5740 | 사제관 (02)365-0749
e-mail : antonios@boc.or.kr

♣ 찾아오시는 길

춘천시 → 양구읍 →
팔랑1리(목장마을)

성 보리스 소성당



춘천시 서면 금산리 1076번지
Tel (031)584-2082

♣ 찾아오시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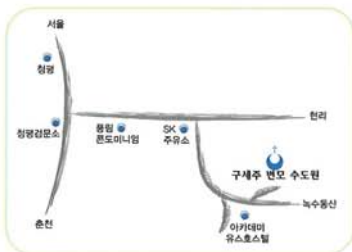


구세주 변모 수도원



경기도 가평군 상면 덕현리 녹수동산
Tel (031)584-2082 | Fax (031)585-2278
<http://soback.kornet21.net/~immsk>
e-mail : immsk@soback.kornet21.net

♣ 찾아오시는 길



바바라 파파스 여사는 DePaul University에서 초대교회의 교부들에 대해서 전공하였고, 러시아의 신학 아카데미와 미국의 다른 여러 곳에서 정교회 신학에 대해서 많은 강의를 하였다.

저서

The Christian Life in Early Church and Today
(according to St. Paul's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The Christian Life in Early Church and Today
(according to St. Paul's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God's Bubbly, Gurgly, Overwhelming, Overflowing Love.

구원으로 가는 길

정교회가 믿는 구원의 과정

초판 1쇄 발행일 2003년 4월 20일

지은이 | 바바라 파파스
옮긴이 | 마은영
발행처 | 베드로서원
발행인 | 한용석
주 간 | 한순진

등록번호 : 제14-66호 · 등록일자 : 1988. 6. 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3-1 서교타워빌딩 1106호 · 우편번호 121-760
Tel. 02)333-7316 Fax. 333-7317
E-mail : peter050@kornet.net

피터하우스는 기독교문화 창달을 위해 좋은 책 만들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 파본 및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ISBN 89-7419-157-1

값 4,000원

본 도서의 판권은 한국 정교회 교구에 있습니다.
© 한국정교회 교구. 2003

착한 목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성화는 “나는 착한 목자이다”(요한 10,11)라는 주님의 말씀에서 온 것이다. 주님은 “잃은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루가 19,10) 세상에 오셨으며, 잃은 양을 찾으면 “기뻐서 양을 어깨에 메고”(루가 15,5) 돌아오시는 분이시다. 초대 교회의 교인들이 좋아했던 이 성화는 사랑과 평화와 정의가 인간 사이에 또 백성들 사이에 퍼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양떼를 알아보시고 사랑하시며, 양떼를 보호하시고 이들을 위해 희생하시는 착한 목자를 우리가 만드시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나는 착한 목자이다.

착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요한 10:11

값 4,000원



9788974191573



03810

ISBN 89-7419-157-1